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66.09 (+5.17)	↓ 코스닥	839.61 (-13.27)
↓ 금리 (미국 9년)	3.035 (-0.041)	↑ 환율 (원/달러)	1384.65 (+1.15)

metro® 경제

하이브리드 인기
상반기 수출액
370억 달러 '사상 최고'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SK온 운명의날... 100조원대 공룡 에너지社 탄생 임박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그룹의 리밸런싱(재조정)이 시작됐다. 첫 관문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다. SK는 이사회를 앞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자산규모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이 탄생한다. 두 회사간 합병 여부에 따라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오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합병 추진을 검토한다. 이 결과에 따라 1지주사 SK도 18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K이노-SK E&S 합병 막판조율 증권가, 양사 합병 가능성에 무게 SK온, 적자·재무구조 개선 기대

합병 비율 따른 주주 반발 걸림돌 수평통합 방식 CIC체제 구축 의견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비롯해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등을 자회사로 두고 배터리, 석유 탐사, 정유, 석유 화학 제품 생산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보유 자산은 86조원에 이른다.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재생에너지 등이 주력으로, 자산 규모 19조원의 비상장사다.

증권사 측에서는 양사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진의 늪에 빠진 SK온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SK E&S의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

지원을 기반으로 SK온이 하반기 흑자 전환과 IPO 성공길을 열어주겠다는 설명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SK온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온은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가 둔화된 상황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SK E&S는 지난해 매출 11조1700억원, 영업이익 1조3300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매출 77조2900억원, 1조9000억원)보다 수익성 면에서 우월하다. 합병 시 SK E&S의 자금력으로 SK온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SK온은 지난해만 58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주주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 비율에 따라 각각 소액 주주들과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이 주가를 웃도는 가격에 형성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비상장사 SK E&S의 수익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장사 SK이노베이션과 합병 비율이 2대 1로 결정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재무적 안정성 향상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 가능성, SK그룹의 신설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 불식 등을 예로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사는 주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평 통합 방식의 사내독립기업(CIC)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수평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구조로 합병하고, 양사는 기존 조직과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귀에 거즈 붙이고 전당대회 참석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3연속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이 귀에 거즈를 붙인 채 15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스버그포럼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참석해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이야기하고 있다. AP/뉴시스

韓 올해 성장률 2.5%로 상향... 美·日은 하향

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美 대선결과 따라 성장 제약"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3.2% 예상을 유지했다. 또 오는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종전(올해 4월 발표)의 2.3%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및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4.6%에서 0.4%p 올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망치는 2.6%로, 기존의 2.7%에서 0.1%p 낮춰 잡았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일본의 경우 0.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예상한 0.9%에서 0.2%p 내렸다. 올해 1분기 일부 자동차업체의 출하 정지 등 생산 차질을 반영한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콜마, 북미공략 위해 핵심인재 전면 배치

美법인 총괄에 허용철 사장 선임 등 생산·영업 등 각 분야 전문가 배치

한국콜마가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C레벨'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미국에 제2공장 건립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한 현지화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아마존과의 협력도 본격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콜마는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산, 영업, 연구개발(R&D) 각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북미법인 콜마라보라토리즈와 미국법인 콜마유에스에이의 신임 총괄대표이사(CEO)로 허용철 사장이 선임됐다.

허용철 사장은 한국콜마의 기초 및 색조화장품 생산 총괄을 거치며 전문 경험을 쌓은 글로벌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계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북

경콜마와 무석콜마 동사장을 역임하는 등 허용철 사장은 콜마 중국 사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영업 총괄(GCCO)에는 필립 워너리를 임명했다.

필립 워너리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인 인터코스사의 북미법인 CEO, 에스티로더 영국 대표 및 캐나다 대표 등을 지낸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다. 브랜드 기업부터 ODM 기업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대통령실 "늘봄학교 2963곳 운영... 2학기 전국 확대 목표 달성할듯" /사진 뉴시스
- ▲ 대통령실, 김여사 명품백 반한 지시 보도에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 ▲ '25만원 특별조치법' 공청회...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놓고 충돌
- ▲ 외교부 "美 어떤 정당이든 한미동맹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



- ▲ 조규홍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부담 ↑... 업무 완화 방안 추진" /사진 뉴시스
- ▲ 국회 법사위, 이원석·정진석 尹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